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	조현정 전화: 031-888-9055, 이메일: hjcho94@snu.ac.kr

배포일: 2025. 6. 5.

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, 여름철 폭염대비 온열질환예방 '노사 합동 안전캠페인' 실시

- 서울대학교·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원장 김연상, 이하 융기원)은 노사가 합심하여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와 방문시민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의 '노사 합동 안전캠페인'을 실시했다고 6월 5일 밝혔다.
- 이날 행사에는 노사 양측을 대표해 융기원 김연상 원장, 배수문 부원장, 공공운수노조 융기원 분회 금창일 분회장, 융기원 노동조합 김관철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융기원 1층 로비에서 열렸다.
- 노사 양측은 이번 캠페인에서 근로자와 입주기업, 방문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알리고, 폭염대비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키트와 기념품 등을 배포하였다.
- 융기원은 지난 2023년 획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45001) 국제인증을 유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에는 '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'을 발표했으며 매년 '노사합동 안전캠페인'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에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.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이번 안전캠페인이 실시되었다.
-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성과달성을 위해 모든

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 실천해 가기로 했으며,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보건 증진을 선도해갈 계획이다.

- 김연상 용기원장은 “원내 모든 종사자와 방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이번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”며, “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며, 노사가 협력하고 솔선수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지난해 10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제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3,704명으로('23년 2,818명)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. 특히 퀵서비스·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용기원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동근로자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용기원 1층 로비에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배려에 동참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.
- 한편 용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,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, 경기도 AI 중소·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김연상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.